Ineos, HFC-125 1만4000톤 확대

세계 수요신장률 15% 달해 ... HFC-134a 제치고 1위 차지할 전망

Ineos fluor Holdings은 HFC-125 생산능력을 7배 증설해 1만4000톤으로 확대하고 있다.

주요 HFC(Hydrofluorocarbon)-134a 생산기업이자 HFC Blend 주 공급기업인 Ineos Fluor는 아웃소싱을 중단하고 HFC-125 생산능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.

반면, HFC-32는 계속 아웃소싱할 계획인데, HFC-32는 최근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HFC-134a 및 HFC-125 등과 마찬가지로 냉각제 시장에서 HCFCs(Hydrochlorofluorocarbons) 대체물질로 각광받고 있다.

Ineos Fluor는 HFC-125 수요급증에 따라 공급물량 확보에 나섰으며 HFC-32도 계속 구매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자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.

Ineos는 영국 Runcorn 소재 Multiproduct 플랜트를 HFC-125 1만4000톤 플랜트로 전환해 2005년 4월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. 현재 Multiproduct 플랜트는 HFC-125 2000톤 및 HFC-134a 1만톤을 생산하고 있다.

Ineos는 전세계 HFC-134a 생산능력을 5만5000톤으로 유지하기 위해 미국 루이지애나주 St. Gabriel 및 일본 Mihara 플랜트 생산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.

현재는 HFC-134a가 세계시장의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, HFC-134a 수요는 연평균 3% 증가하고 있는 반면 HFC-125는 15%대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9/24>